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11년 4월호

통권 제 212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3월 교우소식

새 가족

- ♣ 이양금 107구역, 종로구 낙원동 13번지,
010-9005-9185
- ♣ 이기현 304구역, 송파구 가락동
미룡(아) 105-1306, 010-9960-1192
- ♣ 이재영 105구역, 종로구 가회동 1-183,
011-350-0632
- ♣ 황명식 203구역, 마포구 합정동 435-39,
011-256-8060
- ♣ 황순례·황명월 108구역, 종로구 누상동
일진래미안 102호, 02-732-5561

결 혼

- ♣ 서원국군·김수옥양(서기연교우·류현일권사 장남)
19일(토) 오후1시, 종로웨딩의전당 8층

축 하

- ♣ 출산- 서동진 · 박민아 교우, 득녀
- ♣ 취임- 한국장로교육원원장 취임, 이효중장로

감 사

- ♣ 나상용집사·윤향심교우, 13일(주일) 점심식사
- ♣ 백병기·오금숙 집사, 27일(주일) 점심식사

입 원

- ♣ 김충기 장로, 은천재활요양병원 304호.

별 세

- ♣ 고 최인관 집사, 10일별세 12일장례.
- ♣ 고 박인섭 성도(박형철·최문희집사 부친)
7일별세 9일장례.

창립주일행사

지난 3월6일(주일)은 교회창립 102주년의 날이었다. 온 교우들이 안동교회의 102년 생일을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창립주일에 맞추어서 미얀마 오영환선교사와 그 가정이 교회를 방문하였다. 특히, 오영환 선교사의 딸 오세미 자매가 선교보고와 더불어 한국유학의 소감을 한국어로 교회 앞에 발표하였다. 또한 인도로 선교사 사역을 떠나는 김용원 장로, 전덕길 권사의 파송식이 2부 예배시간이 거행되었다. 창립주일의 즐거운 행사인, 기관별찬양발표회는 오후3시 본당에서 있었다. 청년 유경선 자매의 사회로 시작

된 찬양발표회는 영아부 아이들로부터 한빛여전도회, 한누리남산교회 어르신들까지 모든 안동의 가족들이 참여하는 복된 찬양의 시간이었다.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작년에 비해서 늦게 찾아 온 사순절의 시작, 제의 수요일이 3월 9일(수)이었다. 회개의 계절, 절제와 자기포기의 기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기의 40일 새벽을 200여명의 안동교우들이 깨우기 시작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도전하는 40일 새벽기도이다. 올해는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라는 주제로 황영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셨고, 호산나 찬양팀이 은혜스러운 찬양시간을 인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맛있는 아침식사로 뺄 수 없는 새벽기도의 특징이다. 이번새벽기도회는 4월23일에 마치지만, 이어서 새벽기도에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소그룹'모임이 5월 첫 주간부터 6월 첫 주간까지 6번 이루어질 것이다.

향존직 선거

사순절의 뜨거운 기도의 열기는 교회의 향존직을 뽑는 공동의회에까지 이어졌다. 지난 20일(주일)과 27일(주일) 2차의 향존직 선거가 300여명의 교우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선거는 장로5인, 안수집사10인, 권사15인을 세우고자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장로 피택자는 없었고 안수집사 9명, 권사 12명이 선출되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안수집사:최덕천, 백병기, 이영수, 김광엽, 조성행, 신영식, 이진, 이현식, 이종의 (권사: 원명자, 이경복, 박정희B, 차은미, 김행미, 신부순, 이선옥A, 박선숙, 신현자, 유란임, 김민수, 강희선) 피택자는 당회아래 5개월간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올해 가을쯤 임직할 예정이다.

유치부 성경 암송대회

정성라 선생님

3월! 이제는 진짜 봄인것 같아요. 아이들도 따스한 봄을 느끼며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지고 가볍게 문을 열어줍니다. 움츠러들었던 몸을 펴고, 엄마손을 잡고, 아빠 손을 잡고,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들어서는 아이들. 그 모습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느낀답니다. 3월 첫 주에는 찬양대회가 있었어요. 15명의 아이들과 10명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했는지.. 그중에 유치부 친구들은 그 작은 손과 작은 발을 움직여 율동을 하고, 그 작은 입으로 어쩔 그리도 예쁘게 찬양을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와 율동은 10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여러 성도들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유치부에서는 성경암송대회를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암송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선생님들은 영어로 암송하자는 전도사님의 의견에 모두들 '으~악' 했지만 즐거이 그 뜻에 따라 선생님들은 영어로 암송을 했지요.. 그런데 유진선생님의 본토발음에 따라가려 혀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얼마나 꼬는 발음을 구사하던지. 그 모습에 또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그렇게 웃고, 즐기고, 공부도 하며 행복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려울 것만 같았던 영어암송이 쉬운 듯 느껴지며 모두들 외우는데 성공하고, 기쁨의 박수를 쳤지요. 물론 우리 아이들의 암송 실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7살 이현이와 6살 예서, 그리고 4살 재서는 탁월한 암송실력으로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매번 눈물로 유치부 문턱을 넘던 막내 재서의 성경암송.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어요. 그 작은 입으로 쫄쫄쫄 얼마나 잘 외우던지. 제일로 커다란 선물을 가슴가득 안는 기쁨을 누렸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의젓해 보이기도 했지요.. 아직 외우지 못한 친구들도 부러움에 아쉬워하며 '다음 주에는 꼭 외워 와야지' 초롱초롱 눈을 빛내며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외우는 게 아닌 가슴에 새겨 넣는 유치부가 될 거예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유치부의 모습을 기대하며.. 유치부 파이팅!

아동부 교사들의 소그룹 모임

류화숙 전도사

겨울 성경학교를 마치며 교사들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들을 뱉어내기 시작했다. 서로간에 대화가 부족하여 일의 진행이며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공통사항을 놓고 우리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 토요 모임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찬양도 맘껏하고 기도도하고 성경공부도하며 주일

을 느긋하게 준비해보자 했다. 예배 구성 요소도 주일 아침이 아닌 하루 전에 결정해서 더 정성스럽게 올려보자 했다. 그렇게 우리의 소그룹은 시작되었다. 때마침 교회에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이었다. 대부분 젊은 청년들도 구성되어 있어서 봄이 한창 무르익는 토요일에 유혹의 햇살을 뒤로하고 교육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도 첫모임부터 7~8명의 교사들이 참석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자숙하게 했을까? 처음엔 전도사의 부족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교사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줄 몰랐는데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줄이야... 스스로 소그룹을 만들고 열심을 내고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며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신다는 말을 하고 싶다가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자원ियो 계기가 될 수 있기에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소중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3월의 생일파티는 영상과 깜짝이 어울어진 기막힌 찬사를 받는 시간으로 재탄생했고 교사들의 주일 아침은 참으로 여유롭고 행복해졌다. 아동부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교사들에게 먼저 쏟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자의 고백을 들으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비전 컨퍼런스

최진오 전도사

2011년 중고등부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전 컨퍼런스'를 기획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와 조언을 들음으로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후보를 모색하던 중 올해 중고등부로 새로 오신 김경일 선생님의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떠나 홀로 타지 생활을 경험하며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학생들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3월 27일 주일, 비전컨퍼런스의 첫 단추가 김경일 선생님에 의해 잘 끼워졌습니다. 15살의 어린 나이로 막막한 외국생활을 해 나갔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주셨습니다. 영어로 쓴 첫 에세이가 서툰 탓에, 선생님으로부터 온통 빨간줄이 그어졌었다는 이야기는 듣는이의 마음을 활짝 여는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어진 20분간의 선생님의 이야기와 질의응답을 통해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좀 더 김경일 선생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혁신적인 비행기 엔진을 만들고 싶다는 선생님의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꿈을 가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원대할수록 부담이 클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 적습니다. 목표가 불분명합니다. 매일매일 학원과 과외의 압박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자아를 성찰하며 깊이있게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어야말로 삶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지만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우리 교육의 아픈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주인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꿈과 비전을 심어 주시고 세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중고등부의 비전 컨퍼런스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고 자신의 이야기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동교회의 자녀들이 (정말, 반드시, 꼭)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믿음에서

아이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곳, 믿음의 "뿌리"로서의 영아부

진, 건, 단 아빠 박지윤

국어사전에서 믿음이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며, '신앙' 또는 '신뢰성'과 같은 말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신뢰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세상에 펼쳐 보인 '역사적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나의 경우 이 믿음은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다시 어머니로부터 전해져서 알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뿌리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 받은 '믿음'이지 내 스스로 갖게 된 '믿음'은 아니다. 그런데 스스로 갖지 못한

‘믿음’을 영아부를 다니면서 ‘엄마’, ‘아빠’, ‘은나’ (형아)하고 말을 배워가는 4살 ‘건’이와 몇 달 전 뒤집기를 시작한 이후 배밀이를 하며 세상을 향해 기어가려는 6개월 ‘단’이에게 다시 되물려 주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였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 같다. 건이 단이를 비롯하여 영아부의 많은 아이들이 주일마다 스스로 교회에 두 발로 걸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매주 영아부로 모이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여겨졌다. 이것은 곧 ‘이끌림’이다. 잘 알다시피, 아이들 스스로는 ‘교회에 가야지’하고 마음-먹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부모님들의 손에 ‘이끌리어’ 나오는 것이다. 만약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뿌리치기’라도 하면 억지로 나오게 되거나, 나오지 못하게 된다. 나의 어린 시절 또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에 이끌리어 다녔던 것 같고, 조금 커서는 친구의 손에 이끌리어 다녔다. 이것은 모두가 보이는 ‘이끌림’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이끌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고, ‘성령’의 바람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것이 각자의 몸에 배고, 마음에 새겨져서 ‘믿음’의 총량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내 믿음이 어린 시절부터 몸이 자라고 마음이 넓어지면서 크고 단단해진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아이들을 영아부로 이끄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겼을 텐데, 보이는 ‘이끌림’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끌림’을 느끼지 못한 탓에 모래알과 같은 ‘믿음’을 전해주려니 부끄러웠다. 다행히도 나보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가진 ‘엄마’가 우리 세 아이들의 곁에 있어서 감사하다. 영아부의 모든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정숙한 모습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돌아다니거나, 서로 갖고 노는 장난감으로 싸우는 일이 잦다. 여기에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 돌보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느라 더하여 늘 소란스럽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조심스레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을 것이다. 부모님과 함께 부르는 찬양과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그리고 선생님들의 돌봄과 기도 그리고 나누어 먹는 맛 좋은 간식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날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것처럼 함께 하고 있는 영아부의 모든 아이들의 몸과 마음속에 소리 없이 전해지는 믿음의 영양분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어느덧 주일마다 함께 하는 영아부에서의 믿음생활은 내 믿음의 토양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신앙고백은 그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표현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나에게 그와 같은 말은 다소 낯선 말이었다. 그러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고, 친구들과 함께 했던 초등학교 시절의 짧은 교회활동과 기독교계의 중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조금씩 이어졌을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의 신앙도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마흔 중반의 나이에 이르렀는데, 영유아기의 우리 아이들에게 베드로가 가진 신앙고백이 있기 바란다는 것은 제 앞길도 못 보는 장님이 남에게 길을 가르쳐 주려는 것과 같은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 덕분에 영아부를 나오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께 전해들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아이들에게 물려준다기보다는 덜 자란 나의 믿음을 다시 가꾸어 가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싶다. 아이들에게 모래알과 같은 ‘믿음’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으로 물려주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어릴 적 ‘이끌리어’ 전해 받은 믿음의 ‘바람’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거둬나는 ‘믿음’으로 변화하는 것이리라. 이 모든 것은 아이들에게 값없이 주고-주고 또 주시는 전도사님과 영아부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자잘한 일들을 뒷바라지하는 여러 선생님들의 ‘이름’과 보이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은 것일 것이다.

[진,건, 단 엄마 박금희의 붙임] : 초등학교 때 친구의 이름에 교회를 다니게 되고, 중학생이 되어 내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힘겹게 믿음생활을 하였지만, 대학교 때는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 성령충만한 삶을 느끼며 살았다.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사랑에 풍덩 빠져 결혼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 잘하자고 교회로 이끌었다. 그런데 세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는 그 뜨거운 신앙을 불태우기는커녕 제자리나 붙어있기를 바랄 지경이다. 열심히 밀줄 그으며 사랑했던 성경책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무겁다며 들고 다니지도 않고 교회 화면으로 본다. 아이들 돌보랴 영아부에 있다보니 예배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가버려 안타깝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아닐 거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니까... 영아부에서 아이들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우리 가정도 잘 자라게 되기를! 새벽기도를 통해 뿌려진 남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생활을 간절히 사모했던 내게도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다. 그래서 매일 매일 신앙은 삶이다. 진이는 유년부에서 건, 단이는 영아부에서 우리는 안동교회를 통해 잘 자랄 것이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제96회 총회, 주제·장소 확정

제96회 총회가 오는 9월 19~23일 강북제일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을 주제로 개최된다. 지난 21일 총회장실에서 열린 제95회기 8차 임원회에서는 제96회 총회 장소를 강북제일교회로 확정했다. 지난 해에 총회 장소 유치를 신청한 바 있는 강북제일교회는 올해 3개 교회를 대상으로 실사를 벌인 끝에 교회가 편리하고 주위에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들어 제96회 총회 장소로 확정했다.

총회 장소 결정에 이어 이날 임원회에서는 총회주제연구위원장이 제출한 제96회 총회 주제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부제: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도 허락했다. 총회 주제와 관련, 향후 4~5년간 총회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로 선정해 달라는 청원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또 김상익목사가 총회장을 상대로 정직 및 선교사 해임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과 관련, 소명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장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총회 특별심판위원회를 구성해 다루기로 했다.

사회봉사부장이 제출한 일본 대지진 관련 전국교회 모금 허락 청원 건에 대해서는 일본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을 위해 재해구호 차원에서 모금을 허락했으며 군농어촌선교부장이 제출한 군인교회 성경보급을 위한 후원운동 전개 청원건에 대해서도 허락했다. 군인교회 성경보급을 위한 후원운동은 총회 군선교주일을 맞아 총회 파송 군종목사 65명과 군선교교역자 98명이 시무하는 군인교회에 총회창립1백주년기념성경 각 1백권씩을 보낼 수 있도록 군선교 후원교회를 대상으로 성경 보급운동을 전개하는데 맞춰져 있다.

한편 이날 총회 임원회에서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님이 제출한 '이단 옹호 언론 및 이단 관련 연구청원건'을 허락했으며 제주노회장이 제출한 '총회이기풍선교기념관 제주노회 이관계획 보고 및 이관 절차 이행 청원건'에 대해서도 허락했다.

방사능 유출 심각, 위험에 노출된 선교사들

동북 관동지역의 지진과 쓰나미로 지금까지 1만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핵방사능 유출로 극도의 공포를 겪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본교단 총회가 성도들의 마음을 담은 위로의 인사를 전달하고 본교단 일본선교사회에 제1차 재해구호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본교단 파송 선교사로 구성된 일본선교사회(회장:정연원)는 빠른 시일 안에 재해구호팀을 구성, 조직적인 구호사업을 본교단과의 협력 하에 시행키로 했다.

본교단 총회는 지난 11일 일본 동북 관동지역에 지진과 쓰나미, 핵방사능 유출 피해가 발생하자 곧바로 총회장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총회 차원의 모금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핵방사능 유출 위기에 돌고 돌고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와 재해구호담당 간사가 일본으로 지난 16일 출국, 본교단 파송 일본선교사들을 만나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구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총회 긴급조사팀은 이번 방문에서 일본기독교단, 재일대한기독교회, NCCJ 등을 방문해 총회 차원의 위로 인사를 전하고 교회의 피해상황을 파악했으며, 향후 본교단이 도울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8일 현재, 쓰나미로 인해 인명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인 동북부 지역에는 본교단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지 않아 본교단 선교사 및 가족들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난 11일 도쿄에서도 강도 높은 여진이 발생해 도쿄 및 인근 지역 선교사들의 교회 및 사택의 집기가 파손되는 등 약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홍성완목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인 목사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동북부 지역에서 사역하는 일본기독교단 소속의 한국인 배선희목사(이시노마키야마 시로초교회)가 쓰나미 피해를 당해 교회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배 목사는 사고 발생 당시 타지에 외출 중이어서 목숨을 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18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핵방사능 유출 사태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져 도쿄마저 더 이상 안전지대로 분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치하라시 정유공장 폭발 인근지역에서 사역

중인 조중래선교사, 도쿄에서 사역 중인 김병호, 강장식선교사 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을 위한 총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원자력발전소의 핵 방사능 유출이 최악의 상황에 다다를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18일)까지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교회의 한인 교인 대부분은 한국 혹은 일본의 남쪽 지방으로 피신한 상태다.

한편, 현재까지 한인교회의 피해는 별로 없지만 일본 내 최대 교단인 일본기독교교단의 교회들은 다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기독교교단은 지난 13일 구호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쓰나미의 직접적 타격을 입은 동북 지역을 직접 시찰하며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여러 교회가 심각한 건물 손상을 입었으며, 교인 및 교회 직원들이 쓰나미로 인해 사망한 교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유출로 인한 접근 금지조치와 통신시설 마비로 인해 피해상황의 완전한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교회의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독교NGO도 일본 지진 돕기 활발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과 쓰나미로 현재 사망 및 실종자가 2만여 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기독교 NGO들도 활발한 구호 및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교회회망봉사단(대표회장:김삼환)은 지난 17~19일 실무자들이 일본을 방문해 지진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일본기독교교단(UCCJ), 재일대한기독교교회(KCCJ) 등 일본 교회 주요 교단 및 연합기관 책임자들과 만나 향후 협력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한 NCCJ UCCJ KCCJ에 각각 1백만엔 씩, CCJ에 30만엔 등 총 3백30만엔의 피해복구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국교회회망봉사단은 현재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기독교연합봉사회와 공동으로 '일본대지진·쓰나미 피해자 및 이재민 돕기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기아대책(회장:정정섭)은 대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 동북부 지역 이재민 구호를 위해 긴급구호팀을 파견, 18일 오전 일본 기아대책과 함께 센다이시 동쪽 시오가마 지역에서 주민 2백여명에게 물과 식량 등 1차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기아대책 긴급구호팀은 일본 기아대책의 도움으

로 17일 니이가타에서 생수, 빵, 침낭, 티슈 등 구호물품을 확보, 이튿날인 18일 오전 센다이시 인근 지역을 돌며 주민들에게 순차적으로 물품을 배분한 후, 후쿠시마 원전 문제로 안전지대인 니이가타 지역으로 이동 했다.

기아대책 홍보대사 등 연예인들도 재능기부를 통해 일본 이재민 돕기에 나섰다. 배우 고은아, 임동진, 김자옥, 조민기, 김혜은, 김정화, 이하늬, 박신혜, 성우 배한성, 앵커 김주하, 가수 씨앤블루 등은 '일본 돕기' 영상 제작에 참여, 고통 받는 일본 이재민들을 향한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 영상은 기아대책 홈페이지(www.kfhi.or.kr)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월드비전도 일본 피해주민들을 위한 모금 및 구호활동에 나섰다. 아울러 월드비전은 특히 지난 18일, 월드비전 송파 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일본 지진피해현황을 보여주고 지진이 났을 때 대피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아이들이 손쉽게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랑의 빵' 저금통을 나눠줬다. 월드비전은 현재 40만 달러 지원을 목표로 지난 13일부터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굿피플(회장:김창명)도 긴급구호 활동을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굿피플 1차 긴급구호팀을 파견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센다이에서 북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오사키시 후루카와 지역과 이시노마키시 타이호코 소학교에서 이재민 1천5백명을 대상으로 담요, 손전등, 식료품,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2만 5천 달러 상당의 긴급구호물품을 배급했으며,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가 되는 대로 국내에서 의료팀과 자원봉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굿피플은 1백만 달러를 목표로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모금 활동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등으로 후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 상황을 알리는 동시에 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현재까지 약 1억 5천 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사회복지법인 '승실공생복지재단(이사장:박종순)'과 일본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이사장:윤기)'도 피해를 입은 재일동포와 일본인에게 김밥과 마실 물(생수)을 제공하는 긴급구호사업인 '고향의 김밥 지원 사업'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인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도 구호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기윤실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센다이시의 기독교재난협의회와 이번 재난으로 인해 본국에서의 송금이 여의치 않아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재한 일본인 유학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구세군대한본영은 지난 18, 19일 이틀간 서울 시내 30여 곳에서 자선냄비를 거리모금을 펼쳤다.

구세군은 현장에서 구호활동 중인 일본 구세군과 협력해 지원활동을 전개시켜 나갈 예정이다.

정직윤리, 사회정치윤리운동에 집중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최근 집중했던 '교회신뢰운동' 외에도 '정직윤리운동'과 '사회정치윤리운동'까지 확대해 향후 운동의 방향을 재정향했다.

기윤실은 지난 7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가진 회원총회에서 창립정신에 입각한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적 실천을 촉구하는 '정직윤리운동'과 기독교시민운동의 모체로써 그간 분화된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원화되고, 상대화된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갖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견해와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정치윤리운동'으로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기윤실은 3가지 운동방향에 맞게 올해 집중할 7대 사업을 발표했다. 우선 '정직윤리운동'으로 △최근 목회자윤리문제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회자윤리강령 발표 등 목회자윤리문제 해결을 위한 '목회자윤리운동' △전월세대란과 같은 사회이슈문제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전월세값 동결 또는 인하와 같은 실천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사회이슈실천운동'을 '교회신뢰운동'으로는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금권선거로 촉발된 교계에 만연한 부정부패선거에 대해 공명선거운동을 통해 그간 사회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활동해 온 노하우를 활용해 '깨끗한 교계선거운동' △교회의 환경운동 차원에서 연속사업으로 '재생종이 사용운동' △한국교회가 성장지향적인 교회가 아닌 지역에 뿌리내린 교회로 작은교회들이 지역사회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집중해서 소개하고, 운동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운동'을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치윤리운동'으로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이슈를 올바른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기윤실 포럼'을 전개한다. 아울러, 청년운동 강화차원에서 다양한 '기독교시민교육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기윤실은 위와 같은 운동전개를 위해 새로운 집행부로, 신임이사장에 이동원 현 공동대표(지구촌교회 원로목사)를, 공동대표로 이장규 현 이사(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전채중 현 이사(법무법인 소명 변호사)를 선출하고, 현 공동대표 중 박은조 공동대표(분당샘물교회 담임목사), 백종국 공동대표(경상대 정치행정학부 교

수), 임성빈 공동대표(장신대 기독교외문화 교수)를 유임했다. 지난해 7월 사무총장의 사임으로 공석이었던 사무처 책임자로는 현 정책팀 팀장인 조제호 팀장을 사무처장으로 선임했다.

"이제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시대입니다"

"이번에 장신대가 개설한 평신도교육원은 교육부 편제에 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고급 강좌들을 통해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평신도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부분에서는 평신도들이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은 거듭 강조한 장신대 장영일총장은 "평신도들의 역할을 확대해 줘야 할때라는 판단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하는 당위성도 있는만큼 새롭게 마련된 교육과정인 평신도교육원이 앞으로 평신도 지도력을 기르는 훌륭한 도장이 될 것으로 본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기치로 내건 만큼 현재 마련된 강좌들도 신앙과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노후건강과 경제관 △실버선교 △기독교와 정치 △이스라엘의 역사와 풍습 △리더십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현대교회와 예배 △신약성서 백잡기 △실물경제 △국가안보 △한국교회와 현실참여 △통일과 기독교의 미래 △신종교의 실제 등이 올 한해 진행될 강좌들이다.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만큼 평신도신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와도 긴밀한 협력을 할 계획이다. 특히 24년 전부터 매년 평신도신학대학원에서 배출한 1천7백여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영일총장은 "평신도교육원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중직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원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소양들을 쌓을 수 있길 바란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1년 2학기 과정으로 진행되는 평신도교육원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강의가 시작된다. 1년에 두차례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평신도교육대

학원 수료자는 물론이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원서교부 중인 평신도교육원은 4월 13일에 서류심사를 한뒤 다음 날인 14일 오후 3시에 면접을 한다. 합격자 발표는 4월 15일이며, 개강은 같은 달 21일 오후 6시에 동대학에서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 예정이다.

성경, 이제는 '삶'으로

한국교회의 역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됐다. 1882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파송 중국 선교사 존 로스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1885년 2월 이수정이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 출간하면서 한국에는 성경을 중심으로한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최초의 한국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도 1885년 4월 5일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손에 들고 인천에 입국했다. 성경이 선교사보다 앞선 유일한 나라인 한국의 초대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성경을 읽는 교회, 성경대로 사는 교회, 성경중심의 교회로 그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었다.

올해는 한글성경이 완역, 출간된지 1백주년인 되는 해다. 1911년 3월 '성경전서'가 출간되면서 한국인들은 성경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읽을 수 있게 됐고 신앙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율법과 역사, 지혜, 시가, 예언서 등 성경 전체를 함께 읽게 되면서 신앙의 토대는 훨씬 풍성해졌다.

성경 번역이 끝나고 나서 언더우드선교사는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점은 말씀의 개념을 완전히 한국말로 옮기는 것이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에 상응하는 한국어를 찾아 번역하는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포함해 지금의 모든 번역어들이 많은 고민과 고심 속에 논란을 거쳐 탄생했다.

한글성경 1백주년의 의미는 △한글성경의 번역과 보급을 통한 복음의 토착화 △한글성서 보급을 통한 한글문화 정착과 발전 △한글성서 번역과 보급을 통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 등 크게 세 가지로 평가된다.

한글성경은 한문 중심의 유교문화가 지배하던 당시 봉건사회에서 '언문'이라 천대받았던 한글을 보급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고 사회에도 영향을 끼쳐서 경제적 자립과 신분 해방의 토대가 됐다. 교회가 노예제 폐지, 조혼제 금지, 처첩제 금지, 공창제 반대, 여성교육 지지, 남녀 평등 지지 등에

앞장서면서 여성의 비약적인 지위 향상을 가져오기도 했다. 특히 최초의 국내 번역 성서가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의 공역(共譯)이었다는 점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서사업에서 보여준 일치운동의 정신은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하나의 성서 전통을 유지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

지난 백년 간 한글 공인 성경은 크게 1911년, 1938년, 1961년, 1998년 번역과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1년 '성경전서' 출간 이후 1938년 '한국어가 허용하는 한 원문대로 번역한다'는 원칙하에 지금 우리가 '개역'이라고 부르는 번역의 개정이 완성됐다. 1961년의 개정은 1938년판 개역을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맞춰 수정하면서 일부 번역상의 오류들을 바로잡았다. 한국교회 각 교단을 대표하는 한국인 학자들로 구성된 개정위원회에서 개정 작업을 추진한 1998년의 '개역개정판' 성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애인, 성차별 관련 용어를 고려한 점이 당시로서는 큰 파격이었다고 평가한다.

한글성경이 출간된지 한세기가 지나는 동안 한국교회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고 현재 대한성서공회(이사장:김순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경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더이상 '받는 성서공회'가 아닌 '주는 성서공회'로 전세계 미자립성서공회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는 지난해 9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 총회를 역대 최대의 규모로 개최하고 성서사업을 통한 세계선교의 사명을 앞장서 수행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새로운 백년을 맞이하면서 대한성서공회는 성경의 번역 출판 반포를 넘어 성경의 메시지가 삶과 실제적인 연관성 속에서 변화의 결실을 맺도록 하는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종이로 된 성경'에서 '전자 형태로 된 디지털 성경'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총회·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촌우물가

2011년 4월호 · 통권 제212호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황 영 태

편집인: 안 중 혁

안 재 훈

발행일: 2011년 4월 10일